

UC BerkeleyLaw 한국법센터 혁신성장지원법제 해외체류연구 성과보고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전략사업실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단기 해외체류연구 제도를 통해 국내 문헌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최신 자료 및 비공개 문서의 수집, 현지 네트워크 확장, 전문가 심층 면접 등을 통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필자는 지난 5월 미국 UC버클리 로스쿨(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Law)을 방문해 ‘혁신성장지원법제 사업’ 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를 위한 체류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지면을 통해 그 성과와 소회를 나누고자 한다.

UC버클리 대학 로스쿨은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향한 사회 운동의 메카로, 파란 하늘과 바다에 맞닿은 수평선 멀리 샌프란시스코와 금문교가 보이는 캠퍼스 동쪽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다. 건물이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지만, 붉은 노을이 짙게 내려앉은 장관이 펼쳐지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개방적 학풍이 매력적이다. 특히, 2013년 한국법센터(Korea Law Center, 소장 John Yoo)가 설립된 이래 미국 내 한국법연구의 지평(地浬)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경 한국법제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버클리 로스쿨은 헌법개정, 지방분권과 자치, 입법평가, 사법개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본 연구원과의 학술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두 기관은 ‘사회적 가치’와 ‘규제 혁신’ 관련 전문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연구진 간 교류 및 방문, 연구업적물의 출간 등에 이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 시를 남쪽으로 이어지는 실리콘밸리에는 구글(Google)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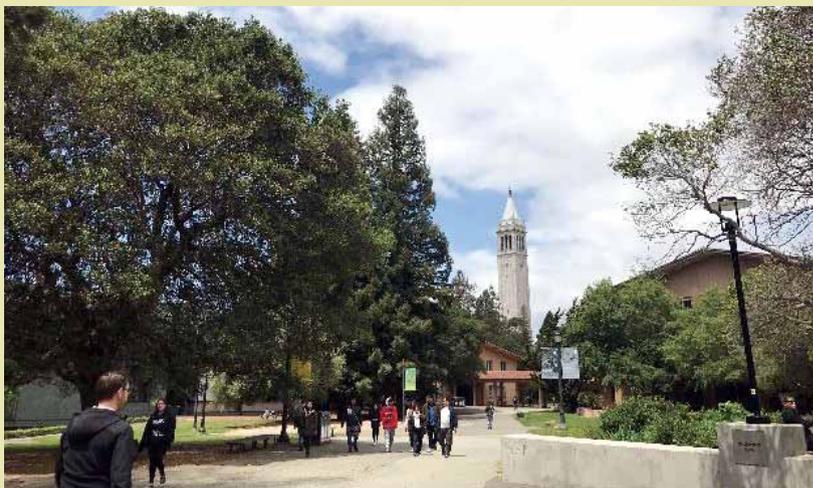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릿지(Bay Bridge)

페이스북Facebook, 우버Uber 등 굴지의 기업을 비롯한 각종 벤처기업들이 모여 있다.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경제적 호황기를 맞은 이 지역에서는 환경, 고용, 평등, 젠더, 상생 등에 이르는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유가치 창출CSV’을 목표로 하는 창의적인 기업들이 태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주목받는다. 이에 필자는 ‘사회적 가치’와 ‘혁신’ 관련 최신 동향 파악, 전문가 면담, 워크숍 개최, 유관 기관 방문, 학술 활동 등 주된 목적으로 체류연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대학과 정부공공분야, 기업과 제3섹터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과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I. “사회적 가치와 혁신” 연구 지평의 확대

사회적 가치는 그 개념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는 공저한 2011년 논문을 통해,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로부터 미국의 사회적 가치 또는 공유가치 창출 논의가 전면적인 전환기를 맞이 시작했다. 즉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가 끊임없이 양산하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 이외에도 소비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기업 활동의 주요 고려 요인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가치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과 포용성장을 고려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고용의 창출, 지역과 환경 문제의 해소, 공정무역, 상생과 협력 등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다각적인 실험 또한 한창이다.

UC버클리 대학에서는 경영대학원HAAS과 로스쿨 내 기업법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적 가치, 사회 혁신과 그 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법센터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공유하면서, Amelia Miazad 교수와 Hana Ivanhoe 박사 등을 초빙해 1950년~1970년대를 풍미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場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UC버클리 대학 캠퍼스 전경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Catherine Fisk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용 사례 및 효과 분석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롯해 사회적 가치 및 공유가치 창출^{CSV}의 구현을 위한 각종 재단과 벤처기업들의 발원지이다. 필자는 체류 연구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FSG와 로버츠 기업 발전기금^{REDF}, Humanity United 등을 비롯해 스탠포드 대학의 SSIR, 보스턴 칼리지의 기업과 시민센터^{BCCCC} 등을 현지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FSG는 앞에 언급한 포터 교수와 크레이머가 자신들의 이론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공동 창시한 기관으로 미국 전역과 유럽, 아시아 각국에 광범위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FSG는 기업 경영 전략으로서 사회적 가치 및 공유가치 창출이 기업의 재무와 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주력한다. 반면 REDF는 ‘고용’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부터 고용의 질적 평등과 접근성 강화 등을 추구하고 측정한다.¹ Carla Javits REDF 회장은 그동안 REDF가 축적한 노하우와 방향성에 상당한 자부심을 보이면서도, 한국 정부가 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추구한다면 REDF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REDF Carla Javits 회장과 함께

1. REDF는 SORI 평가 방식을 고안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보스턴 칼리지 기업과 시민센터^{BCCCC}. 소장 Katherine Smith는 미국 내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중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BCCCC의 경우, 한국의 KOSRI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간-공공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 기관은 기업 등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과 소비자를 새로운 생태계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입법화 전략도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이고 융·복합적인 연구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II. 캘리포니아 주(州) 대법원 등 주요 기관 소개

UC버클리 로스쿨은 지난 60여 년간 미국 내 학제간 연구의 요람으로 자리 매김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법과사회연구소^{CSLS}를 비롯해 약 30여 개에 달하는 연구소를 두고 학계와 정부기관, 실무가와 NGO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체 간 학술적·인적 교류와 소통을 지향해 왔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州헌법연구소, 사법^{司法} 연구소, 기업법연구소 및 차별금지법제 연구소 등과의 소통은 미국 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또는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 그 밖에도 필자는 샌프란시스코와 팔로알토, 시애틀 및 워싱턴 D.C. 등 미국 내 여러 주^州와 도시를 넘나들면서 유관 기관 및 연구자 등과의 긴밀한 학술교류를 위한 인적·물적 연구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2. Liu 대법관은 BerkeleyLaw의 헌법교수 출신으로 필자의 은사(恩師)이기도 함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재 Goodwin Liu 대법관²을 방문해 지난 7년간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리에 대해 판결로서 밝힌 견해와 소회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 캘리포니아 주재 헌정 체계와 지방분권, 규제영향평가^{RIA}, 캘리포니아 주재 법관임용 방식과 미국의 사법개혁 쟁점, 미국 내 한국법 연구 확산 방안 등을 국내에서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단기 체류연구를 통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국제 위상의 제고

필자는 체류 기간 중인 5월 14일, 버클리 로스쿨에서 개최된 <#미투-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전세계적인 저항The Worldwide #MeToo Movement: A Conference on Global Resistance to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사례와 사법적 구제의 현황”이란 제목의 발표를 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미국과 멕시코 스페인, 일본, 체코, 프랑스, 호주, 홍콩 등 20여 개 국가에서 참가한 200여 명의 학자, 연구자 및 법률가들은 한국의 미투운동을 2016년 말 증폭된 역동적인 사회 변동의 일환으로 평가했으며, 이후 법제 개선 방안과 사법부의 판단 등에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제안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2019년 Law and Society Association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해외 법제 연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학자와 실무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

IV. 마치며

끝으로 미국 현지에서 다채로운 연구와 국제회의, 워크숍, 간담회의, 기관방문, 전문가 면담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John Yoo³, Goodwin Liu⁴, Jeremy Fogel⁵, David Carrillo⁶, Robert A. Kagan과 Malcolm M. Feeley⁷, Hiroshi Fukurai⁸, Dean Fealk⁹, Minji Kim¹⁰을 비롯해 기관방문과 심층면접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 해외체류연구를 적극 지원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3. UC버클리 한국법센터장, 교수
- 4. 캘리포니아 주(州) 대법관, 교수
- 5. Judicial Institute 센터장, 前 연방대법관
- 6. California Constitution Center 센터장
- 7. 이상, 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Society 석좌교수
- 8. UC Santa Cruz 대학교 교수, Asia Law and Society Association 現 회장
- 9. DLA Piper 파트너
- 10.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변호사



Goodwin Liu 캘리포니아 주(州) 대법관과 함께



UC버클리 Malcolm M. Feeley 교수와 함께



The Worldwide #MeToo Movement (2019. 5. 14.)



The Worldwide #MeToo Movement 최유경 박사 발표 (2019. 5. 14.)